

/ <표 1> 전략적 협력약정 이행계획 /

구분	내용	비고
AEO MRA 이행	• 국장급 이행점검회의 개최 이행모니터링 강화	'15년 상반기
원산지 협력	• 원산지 실무위원회 구성 •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개최 • 원산지 자료 전자적 교환시스템 개발	'14.10월 '14.9.18(서울) '15년 초
무역통계 교환	• 무역통계 자료 정기적 교환 • 무역통계 분석 및 조정 • 무역통계조정회의 개최(국장급으로 격상)	'14.8월(대분기) '14.8월(대분기) '15.4월(연 1회)
불법·부정무역 단속	• 조사부서간 수사공조 및 정보교환 • 한-중 조사실무자 회의 개최	연중 '15년
인적자원개발	• 양측 교육훈련 기간간 실무접촉 • 한-중 통관설명회 개최	'14.8월 '14.9월

또한, 악영이행과 동시 한-중 FTA 체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 실무위원회 구성, 2014 제1회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개최(9.18), 원산지 자료 전자적 교환시스템 개발회의 등을 적극 추진 예정이다.

중국 시기에 선측제인(先測制人), 즉 "남보다 먼저 도모하면 능히 남을 앞지를 수 있다"는 고사어가 있다. 이번에 체결된 악정을 호기로 삼아 우리 기업이 중국 수출에 날개를 달 수 있기 바라며, 이를 위해 관세청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02 FTA 최근동향

I. 관세청 주요 이슈

제27대 김낙회 관세청장 취임

세계개편을 주도해 온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계실장이 7월 25일 "제27대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김낙회 신임 관세청장은 기재부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관, 조세심판원장, 기재부 세제실장 등 세계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국제 조세 관련 합상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8일 제27대 관세청장 취임식에서 김낙회 신임 관세청장은 정부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관세청을 역할을 주문하면서, 특히 △경제 활성화 지원 △임정한 세수관리 △국민건강 보호

△최소한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요하게 꼽았다.

김 청장은 또 "경제 혁신과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며 "그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우리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7월 29일 취임 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관세청 조직은 작지만, 단합도나 충성도는 높다"며 "특히 세계은행에서 매년 세계통관분야 순위를 매기는데 5년 연속 1등을 했을 정도로 관세 행정에 있어서 우리 관세청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



사진 출처: 관세청



사진 출처: 관세청

아울러 '경제 국경의 파수꾼으로써 국익을 위해 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직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7차 한-중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청은 7월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중국 해관 총서장과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세관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중 관세청장 회의는 양국 세관 당국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적인 고위급 회의로, 특히 이번 회의는 인적자원 개발 분야 협력 사업 등 현안 과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해관총서 측의 개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 날 회의는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의정 체결 및 이에 따른 구체적 이행사항에 관한 논의가 주요 내용으로, △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협력 △ 통계자료 교환 MOU 이행 협력 방안 △ 조사단속 분야 협력 △ 대구-남경 세관 자매결연 체결 △ 한-중 통관행정 설명회 협력 △ 주한 중국 관세관 파견 논의 등이었다.

관세청, 수출입기업과

「자유무역협정(FTA)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7월 23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입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현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간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35개 FTA 활용 대표 기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외국 경제단체인 주한미상공회(회스(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O)가 처음으로 참석하여 FTA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현황,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현황, 관세청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 중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FTA가 우리 경제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앞장서겠다"면서, 기업들이 관세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FTA 활용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의 검증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검증기관인 관세청의 전문지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면서 관세청을 기업의 FTA 상담사(컨설턴트)로 활용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관세청, FTA원산지검증 지원을 위한

산업별 협회와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지난 6월 30일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 검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 산업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협회, 플라스틱공업 연합 등 10개 산업별 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최근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전기·전자제품, 기계, 섬유,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플라스틱 등 우리나라 7대 수출 주력산업에 집중됨에 따라, 이들 주력 수출 산업별 협회와 원산지관리 의 중요성과 원산지검증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협회 및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이 준비하고 있는 '원산지검증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우리 기업이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검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YES FTA 센터, 등을 통해 FTA를 활용 하는 우리 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증 요청이 많은 산업을 선별해 집중적인 설명회 등을 열고 우리 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YES FTA 센터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 해결하기 위해 전국 주요 세관에 설치된 전담 조직으로, 기업별 FTA활용 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원산지 확인서 사전심사, 해외통관예로 해소,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등 FTA준비부터 활용, 문제 해결단계까지 집중 지원하고 있다.



사진 출처: 대전투데이

관세청, 농수산물 지원 위해

YES FTA 컨설팅관' 설치

관세청은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국내 농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한 상담회에서,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해 현상상담을 펼쳤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센터에서 해외 구매자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buy Korean Food' 행사를 개최했는데, 관세청은 행사 기간 중 YES FTA 컨설팅관을 설치해 전문상담관 7명을 배치, 구매자들과 수출업체 등을 상대로 수출대상국의 관세율, FTA 활용에 따른 관세혜택 등을 설명했다.

특히, 특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FTA 활용방법, 품목분류, 원산지 증명서작성,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를 사용한 원산지관리 방법 등을 1:1로 상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관에서는 관세청이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며, "FTA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농수산물품 수출업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2014년 하반기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관세청은 6월 30일 '201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16개 개선사항을 포함해 7월 중 총 36개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되고, 연말까지 37개 과제가 시행되며 총 73개의 제도개선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내용 중, 국민 개개인과 수출입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직구, 해외이사자, 해외여행자 편의성 향상

해외직구 개인신고 수출입신고제도를 통해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제도의 경우 수출신고 항목이 57개에서 37개로 줄어드는 등 전자상거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텔레비전·냉장고·그랜드피아노 등 가정용 물품에 대한 해외 이시물품 인정기준을 완화했으며, 항공기 출항 지연으로 항공사가 여행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간이세행·샌드위치만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밥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 통관·물류제도 개선

김포공장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물에 대한 일관운송절차가 도입되어 기존의 입항지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없이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파 목적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단순화 되었다.

또한 복합물류창고(자유무역지역)내 제포장·가공·조립 작업에 사용되는 국산물이 관세환급대상(과세보류)으로 인정받게 되어, 복합물류창고 작업을 통한 수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출신고 시 송품장 등 첨부문서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성실무역업체(AEO) 인증업체'에서 '자기통관업체'와 '개인직접신고'의 경우까지 확대된다.

3. 자유무역협정(FTA) 및 성실무역업체제도(AEO) 개선

FTA 원산지 검증 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전수 검증하던 것을 '선(先) 샘플링, 후(後) 전수검증'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AEO 인증의 경우, AEO 신청을 위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추었으며, 현재 성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지원 대상을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으로 확대하고, 납기연장·분할납부 혜택도 확대하였다.

관세청,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서비스 개선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해 원산지 자료를 가공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엑셀 프로그램 자동연계 기능을 추가해 보강한다.

그간 영세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고 전산시스템도 갖추지 못해 자체명세서 등 FTA 특혜에 필요한 원재료 관리 자료들을 FTA-PASS 양식에 맞춰 매년 수작업으로 등록하는 등 번거로우면서도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엑셀 자동연계기능에 의해 엑셀자료가 FTA-PASS에 자동으로 등록됨에 따라 원재료 등록과 판정·증명서 발급은 물론 지속적인 원산지 관리가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6월 23일부터 제공된 이 서비스에 인해 100만달러 이하 금액을 수출하는 약 7만1000여개 영세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에 따라 원산지관리 기본양식 22종이 엑셀과 연계되고, 업체의 필요에 따라 신규양식도 추가로 등록될 수 있다. 또 누구나 손쉽게 사용 하도록 매뉴얼 도움말 기능도 제공된다.

시스템은 FTA-PASS 홈페이지(www.ftapass.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도 업그레이드판을 설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개선된 FTA-PASS를 원산지 확인서 세관정확인 업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소규모의 2~3차 협력업체들이 원산지관리예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FTA-PASS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세관에서는 수작업심사 대신 시스템을 활용해 심사·확인해줌으로써 FTA 원산지 확인서 처리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크로아티아, EU와의 FTA 특혜관세 소급 적용

관세청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당사국 추가 절차가 완료된 크로아티아로부터 2013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해 FTA 사후신청에 의한 관세환급 조치를 2014년 5월 26일(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조치로 같은 기간(2013. 7. 1~2014. 5. 25.) 중 크로아티아에서 수입된 미화 1,248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해 FTA 사후신청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쉬워진다'

관세청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추진과제로 추진중인 원산지증명서 통합 발급 시스템의 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종전보다 한층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항목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시마다 각 항목을 따로 입력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의 완료로 수출신고 시 민원인이 입력한 항목 중 원산지증명서의 중복되는 운송수단 등 23개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블러오기'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비용 및 통관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한편,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이 더욱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중기청, 해외 현지에서 FTA활용 지원

관세청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우리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고 현지 통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손잡고 해외 현장에서의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을 강화한다.

관세청이 해외 현지 지원에 직접 나서 이유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지사 등을 통해 FTA나 APTA(아시안-태평양 무역협정) 등 일반특혜관세를 통해 관세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FTA활용을 위한 해당 국가의 세관 절차,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의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해 현지 진출 활동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TA 활용 및 통관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본부세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에 나서

서울본부세관은 한국관세사회 및 영등포여성 인력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삼삼시대 경력단절 여성을 FTA 전문 인재로 양성하여 취업을 지원한다.

지원의 일환으로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지난 5월부터 '관세사무원 이론·실습과정'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서울세관에서 제1회 관세전문직 구인·구직 연계행사를 개최했다. 세관측은 해당 행사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20여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하반기중 특성화고생 8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올해 150명 이상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제3국간 FTA활용 환적화물, 인천공항에 유치

인천공항세관은 대한항공과 함께 제3국간 FTA를 활용한 환적화물 신규 유치 방안을 마련해 6월 2일부터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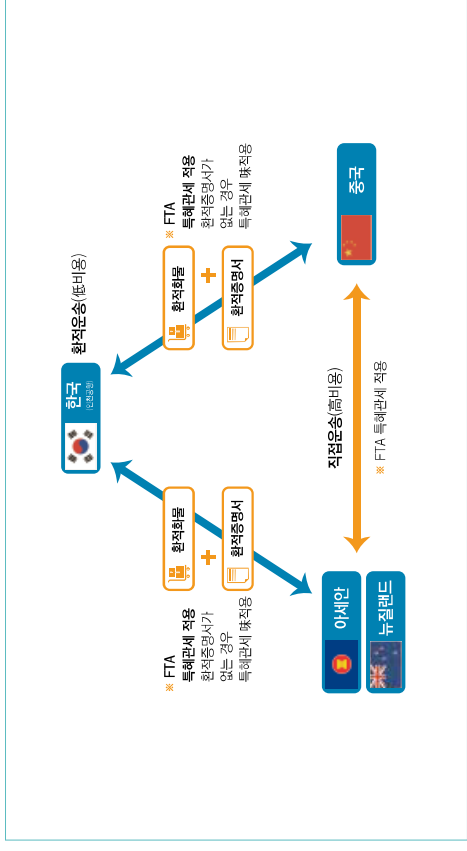
현재 중국과 아세안·뉴질랜드간 거래되는 수출입 화물은 제3국을 거쳐 운송하는 경우 경유국 세관의 환적증명서* 제출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적증명서란 해당화물이 경유지 보세구역에 일시 장치되어 가공 등 추가적인 작업 없이 원상태로 최종목적지로 반출되었음을 경유지 세관이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에 인천공항세관은 환적증명서의 신속한 발급을 지원하고, 대한항공은 해외 화주를 위한 '발급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 연결편을 통해 증명서를 화물과 함께 보냄으로써 화물 도착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과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등 경쟁 공항에서 처리중인 연간 2,800톤 상당의 아세안·뉴질랜드와 중국 간 환적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은 그동안 평일에만 가능했던 환적증명서 발급을 5월 22일부터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 출처: 관세와 무역

관세청,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 실무 가이드」와 「이행지침 안내 20선」 발간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과 품목분류(4S)가 서로 달라 원산지증명서(C/O)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이 FTA 특혜 적용을 받는 데 관련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약 160개 FTA 민원상담기관을 대상으로 상담기관용 홍보 매뉴얼인 「이행지침 안내 20선」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HS번호는 국제무역을 위한 관세품목분류번호로서 국제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나, 각 국가간 상업적, 문화적 차이 및 그간 분류관행에 따라 6단위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일례로, 한-아세안(ASEAN) FTA에서 자동차 에어퀵을 압축기의 부분품인 Shoe Piston의 품목번호가 우리나라는 8414.90호 압축기부분품으로, 아세안은 8483.30호 베어링 하우징의 하나로 분류되는 경우 아세안의 수입 신고필증 등을 확인 한 후 수입국의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그간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수입국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

화외사에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서에 수입국의 HS 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상담기관 간 안내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국에서 특혜가 배제되거나, 사후 검증 등의 우려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기관용 홍보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기업투자들이 각종 원산지증명서류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예제를 통한 각양식별 작성요령 및 유의 사항과 함께, 상대국 원산지 검증절차, 검증성공사례 등을 수록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서 검증까지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식을 총망라 해,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련 서류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원산지증명서류 작성가이드」는 e-book으로도 제작되어, 관세청 FTA 포털(yestiacustoms.gov.kr)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II. 우리나라 FTA 동향

한-EU FTA, 7월 1일부터 관세 추가 인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발효 4년차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양측의 3년 철폐 품목의 관세가 무세화되고, 5년 철폐 품목 등 중장기 관세인하 품목도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

이번 관세 철폐 및 인하조치는 한-EU FTA발효시 관세를 즉시 철폐한 품목 이외의 일부에 대해 추가 개방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중대항(1,500cc 초과승용차, 인경, 위스키, 의약품 등 EU산 622개 품목에 대해 7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했으며, 소형승용차(1,500cc 이하) 베어링, 순조작물, 삼겹살, 고등어 등 1,3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다만 쌀, 관련제품 등 양허 제외 품목과 현행관세 유지품목 등 57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되지 않는다.

EU의 28개 회원국도 오는 7월 1일부터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우리 수출 물품 282개 품목에 대해 추가 무관세 적용하며, EU가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5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한 소형 승용차, TV, 카스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269개 품목도 한단계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및 EU의 FTA특혜 관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 'YES FTA(yestiacustoms.gov.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2014년 7월 1일부터,
유럽산 기초화학품은 4% → 2.6%,
향수와 메이크업 제품은 2% → 0%,
위스키는 5% → 0%,
냉동삼겹살과 목살은 각각
18.1% → 15.9%, 12.5% → 8.3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 <표 1> 한국산 물품에 대한 EU관세율(2014. 7. 1~2015. 6. 30) /

품명	일반세율	한-EU FTA세율
승용차(1500cc초과)	10%	0%
타이어	4.5%	0%
불베어링	8%	0%
승용차(1500cc이하)	10%	3.3%
TV	14%	4.6%
영상재생용기기	13.9%	4.6%
라디오수신기	14%	4.6%

콜롬비아 하원, 한국과 FTA 비준 심의 보류

지난 6월 18일 콜롬비아 하원이 한국과의 FTA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근년 내 한-콜롬비아 FTA 발효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콜롬비아 FTA는 2009년 12월 협상 개시 이후 총 7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3년 2월 정식 서명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콜롬비아와 협의를 통해 될 수 있는 한 이른 시일 안에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콜롬비아 하원이 한국과의 FTA 비준 심의를 보류하면서 올해 한-콜롬비아 FTA의 발효는 무산되었다.

콜롬비아의 비준 절차는 상원, 하원,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완료되는데, 이번 하원의 비준 심의 보류로

콜롬비아 현지 국회법에 의거해 국회 상원 비준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콜롬비아 FTA는 지난해 11월 콜롬비아 상원의 비준을 통과하며 올 하반기 하원 비준과 헌법 재판소의 합헌성 판결을 통해 연내 발효가 예상 되었으며, 올해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체결하는 3번째 FTA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10번째 FTA가 될 예정이다.

콜롬비아 국회 다음 회기인 7월 20일부터 비준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콜롬비아 하원의 한-콜롬비아 FTA 비준 심의 보류의 주요 원인은 FTA 발효 시 자국 산업의 붕괴우려에 따른 것으로 특히 자동차 업체를 비롯한 각종 업체의 반발이 고조화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콜롬비아 내 점유율 현대차가 3위, 기아차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 (표 2) 콜롬비아 품목별 수출 현황(2013) / (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2013	
		금액	증가율
1	기계류	722,257	-23.2
2	화학공업제품	232,266	23.5
3	전자전기제품	151,240	21.0
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98,595	43.1
5	철강금속제품	94,074	1.2
6	섬유류	28,275	-15.5
7	생활용품	7,884	-6.2

한국관세포럼, FTA 10년,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관세포럼(회장 :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6월 13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1층에서 FTA 10년, 그 성과와 관세행정 과제란 주제로 한국관세학회, NSU국제무역 연구소와 공동으로 산·학·관·연이 함께 참여 하는 학술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세분과", "법령·제도분과", "무역분과" 등 3개 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별 5개씩 총 15개의 주제를 발표했는데,

- ▶ 관세분과에서는 "FTA 원산지증상 직접인증 원칙 검토(이대복, FTA전략연구소 고문)" 등 5개 주제
- ▶ 법령·제도분과에서는 "APEC회원국간 통관 장애에 관한 연구(김영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박사)" 등 5개 주제 그리고
- ▶ 무역분과에서는 "중소기업 수출경기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맹철규, 관세청 사무관)" 등 5개 주제가 발표됐다.



사진 출처: 관세청

이날 세미나의 논문발 시회는 서원대 김재식교수 등 7명과 관세청 이명구 국장 및 흥정식 관세사가 각각 맡아 진행했다.

2000년 3월 설립된 '한국관세포럼'은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공무원과 대학, 연구기관, 민간 단체 등 회원 1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포럼에서는 매분기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총 13권의 논문을 발간한 바 있다.

한-뉴질랜드 FTA 제7차 공식협상 결과

한-뉴질랜드 FTA 제7차 공식협상이 지난 6월 8일부터 13일까지 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 개최 되었다.

양측은 남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특히 상품 분야에서는 양측 간 첨예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수석대표 간 협의도 실시했다. 그 결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출처, 협력,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는 양국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상품 분야에서 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는 수준에 대한 양국 간 의견차가 여전히 커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감안 하면서 한-뉴질랜드 간 이익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합의해 나갈 것을 밝혔다.

제7차 한-타이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 타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4일 한국과 타이의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이 실질적인 타결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올 하반기에 협정문 기서명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정식 서명 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작년 5월 발효된 타이와의 상품무역 협정을 포함해 한-타이 FTA는 발효 1년 2개월 만에 모두 타결되었다. 한-타이 FTA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우선 의안일치를 이룬 기본협정과 상품 분야부터 협정을 타결하고 지난해 5월 1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측은 서비스협정과 관련, WTO 서비스협정(GATS)을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마련하되 금융·통신 등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한-타이 FTA 서비스·투자 협정은 서비스시장에서 개방 대상을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을 선택 하되 세계무역기구(WTO)도허가제(DDA)의 양허수준을 넘는 개방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타이 FTA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되어 한국과 타이 양국간 경제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타이 시장에 대한 투자 또는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 될 뿐만 아니라, 이곳을 기반으로 유럽 및 인근 아·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한-타이 연도별 투자현황 / (단위: 천달러, ()는 신고관수)

구분	타이 대한국투자	한국 대한타이투자
2008	1,308(7)	89,797(30)
2009	205(4)	247,104(45)
2010	1,977(10)	66,636(30)
2011	916(7)	135,842(39)
2012	2,131(9)	292,295(44)
2013	2,240(8)	179,084(57)
2014.3	230(1)	27,936(10)
누계	9,007(46)	1,038,694(255)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이로써 한국 영화·방송사와 게임업체들은 타이에서 내국인 대우로 콘텐츠를 팔고, 건설사들도 타이에서 내국인 대우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한-캐나다 FTA 기서명

지난 6월 12일 서울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한-캐나다 FTA 협정에 기서명하였다.

이번 한-캐나다 FTA 협상 내용을 보면,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규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한다.

상품 분야에서는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했다. 즉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97.5%, 수입액 기준으로 98.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캐나다는 품목 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III. 해외 FTA 관련동향

일본-호주 FTA 서명

호주 기업협의회장 제니퍼 웨스타콧은 7월 8일 서명된 일-호주 FTA로 호주 기업들이 일본의 5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FTA의 가장 큰 수혜부문은 호주의 금융 서비스업으로, 일본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서비스 시장이다. 이번 FTA로 호주 펀드매니저들은 일본에서 투자 자금,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증권 거래 등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호주의 액화 천연가스 산업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올해 안에 한·중·일 3국과 FTA를 체결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상반기 한국 및 일본과 잇따라 FTA를 체결한 호주는 이제 중국과의 FTA 체결을 남겨두게 되었다.

중국-스위스 FTA 발효

중국과 스위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7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1일 스위스 언론은 중국과의 FTA가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와 양국 간 일반적 경제교류에도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FTA를 체결함에 대해 경고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EU FTA가 발효하는 즉시 구소련 국가들로 구성된 CIS화원국으로써 누리던 수입세 면제 등을 포함한 자유 무역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몰도바 등을 통해 들어오는 유럽 상품들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정부는 또 중국과의 FTA가 양국 간 무역에서 관세 장벽도 없애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스위스간 FTA는 중국이 유럽 국가와 맺은 첫 번째 FTA이다. 중국과 스위스의 FTA 협정은 지난해 7월 6일 조인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스위스의 3번째 교역국으로 스위스의 대 중국 수출 규모는 80억 스위스프랑(약 9조3951억원), 수입은 100억 스위스프랑(약 11조7439억원)이다.



사진 출처: 이우경제

CIS 회원국이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구소련의 후신으로, 1991년 12월 21일 열린 러시아 대통령령의 주도로 11개국 정상이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에 모여 연합의 설립에 서명함으로써 1922년의 소연방조약을 폐기하고 탄생했다.

참가국은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베크, 키르기스, 카자흐, 타지크, 몰도바 등 11개국이다.

러시아는 이들 3개국이 EU와의 협력협정 체결로 친유럽 노선으로 기술자 경제보복을 공언해 왔으며, 러시아 외부차관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확실하게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해 왔다. 실제 지난 7월 5일 러시아는 위생기준 미달을 사유로 몰도바의 장류제품 수입을 금지했으며, 전날엔 국제 기준 미달을 이유로 역시 우크라이나산 치즈 등 유제품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몰도바의 포도주와 우크라이나의 초콜릿에 대해서도 금수조치를 내린 바 있다.

러시아 반대에도 우크라이나-EU FTA 체결

우크라이나는 국내 반대세력과 러시아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EU와 FTA 협상을 체결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조지아, 몰도바도 EU와 조약을 맺고 EU가입을 희망을 표했으나, EU는 세 국가의 EU가입은 아직 불가하다고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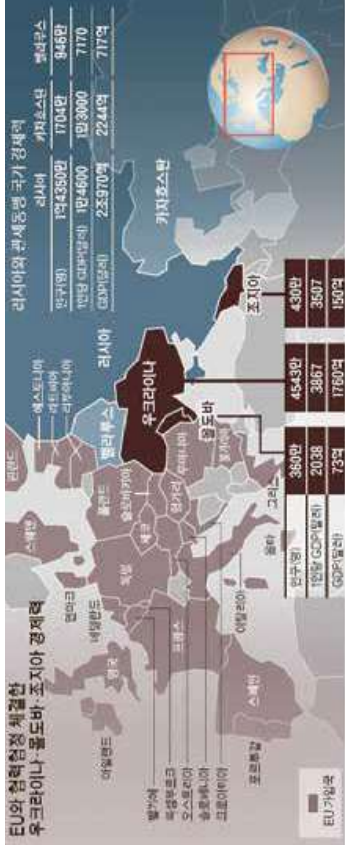


그림 출처: 중앙일보

옛 소련국가들과 EU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러시아는 경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값싸고 품질 좋은 유럽의 상품들이 낮은 관세로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뒤 국경을 거쳐 러시아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고, 또한 경쟁력 높은 EU제품에 국내시장을 빼앗긴 협력협정 체결국의 값싼 상품들이 러시아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의회는 우크라이나-EU FTA체결에 앞서 지난 3월 11일 對우크라이나 상품의 수입관세를 2014년 6월부터 1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철폐하겠다고 결정, 공산품의 94.7%와 농축산물의 84%에 대해 수입관세 철폐를 발표한 바 있다.

EU-미국 FTA(TTIP) 추진 현황

유럽연합(EU)과 미국은 2013년 2월부터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 협의에 착수, FTA에 대한 세부 항목 조율을 위해 5월 19일 워싱턴에서 제5차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오는 2015년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다만 금융 부문은 협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관련 매체는 전했다.

EU와 미국은 과거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공동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EU측은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금융서비스 후퇴를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어, 미국은 일단 금융부문을 제외하고 TTIP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가 영상산업 등 문화부문을 FTA 협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해 이 분야도 일단 협상에서 배제된 상태로 추후 논의할 계획이며, 농산물 및 식품 교역, 정부 조달 등도 협상 진전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FTA체결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스페인이 손꼽히는데, 스페인은 FTA를 통한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있어, 미국, 영국, 독일에 이어 네번째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과 EU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스위스에는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간 TPP가 체결된 후 다른 국가들을 배제하고 양측 무역민이 증진될 경우 스위스는 일 년에 약 34억 달러 이상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15년만에 체결된 파나마-멕시코 FTA

2014년 4월 4일, 파나마와 멕시코 양국간 FTA 협안이 최종 확정 서명되었다. 파나마와 멕시코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FTA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는 양국 간 FTA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된 지 15년만의 체결이다.

양국은 이번 FTA체결을 통해 상품과 기술, 금융, 이동통신, 이커머스 등 교역 전반에 걸쳐 장벽을 없애기로 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자무역, 지적재산권, 제도적 문제 및 분쟁해결 등 2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포괄적 FTA이다.

멕시코와 파나마 양국은 이번 체결로 서로 남·북미 국가와의 상품, 서비스 교역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파나마는 멕시코가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향상한 경제공동체인 태평양동맹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파나마는 2006년에 칠레와, 2011년에 페루, 2013년에 콜롬비아와 각각 FTA를 체결한 바 있다.

/ <표 4> 양국의 교역현황 /

구분	2011	2012	2013
파나마 對멕시코 수출	4.10	4.95	8.43
멕시코 對파나마 수출	4372	5507	5198

자료 출처: World Trade Atlas, Korea 주: 콜론 자유무역지대 제외

체결 앞둔 EU-베트남 FTA

베트남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올해 10월 타결될 전망이다.

베트남에게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큰 무역파트너이고, EU에게 베트남은 10개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다섯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베트남은 FTA 발효되면 수출 확대 기대감이 높아 협상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베트남의 EU 수출과 수입액은 각각 243억 달러와 94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지속적인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베트남에 유치된 EU국의 투자인은 총 1,300개이며, 투자액은 170억 달러에 달해 EU는 베트남의 중요한 투자 유치 대상으로 해석한다.

EU-일본 EPA협상, 3개월 만에 재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계협정(EPA)협상이 3개월 만에 재개되었다. EPA는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과 함께 국기간 협력에 중점을 둔 일본이 타국과 체결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 협정이다.

일본과 EU는 크게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EU는 철도에 대한 입찰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지역 특산물브랜드를 '지리적표시(GI)'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데, 일본도 유사제도를 도입 하기는 하였으나 상표 등록과 향후 브랜드 가치 평가 등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

EU는 일본과의 FTA회담 결과를 검토,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해 나갈 뜻을 밝혔다.

필리핀, EFTA와 FTA 협상 개시 선언

필리핀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올해 내 FTA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은 6월 23일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 슈타인, 노르웨이 등 EFTA회원국들과 FTA 협상을 개시할을 선언했다.

2013년 기준 필리핀에서 EFTA회원국으로의 수출 규모는 3.15억 달러, EFTA회원국에서 필리핀으로의 수출규모는 3.45억 달러를 기록했다.



EU-메르코수르 FTA협상 연내 성과

기대 어려움

EU와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 공동시장)간의 자유무역협상이 올해 안에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남미공동시장은 남아메리카의 자유무역과 경제 협력을 위해 설립한 경제공동체로, 정회원국은 현재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총 5개국이며, 준회원국으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이 있다.

앞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체 상태에 빠진 EU-메르코수르 협상이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이 단일 협상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여 협상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5년에 무역협상을 시작했으며 1999년부터 FTA 체결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시장개방을 둘러싼 주장이 맞서면서 2004년 10월 이후 협상을 중단했다가 지난해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한편 브라질 재계는 메르코수르 차원의 협상과는 별개로 브라질 단독으로 EU 외에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브라질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 3개 국가와만 FTA를 체결했으나, 이 가운데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스라엘 뿐이다. 이는 브라질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메르코수르가 회원국의 개별 자유무역협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EU-캐나다 무역협정 비준 거부

독일은 캐나다 투자회사들의 법적 보호 보호 반대를 이유로 EU-캐나다 협정의 비준을 거부하고 나섰다. EU-캐나다 협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비슷한 내용의 현재 진행 중인 마-EU 협정도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독일은 발표했다.

EU-캐나다 협정은 양국의 무역규모를 연간 260억 유로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마-EU협정이 체결될 경우, 전 세계 경제의 약 50%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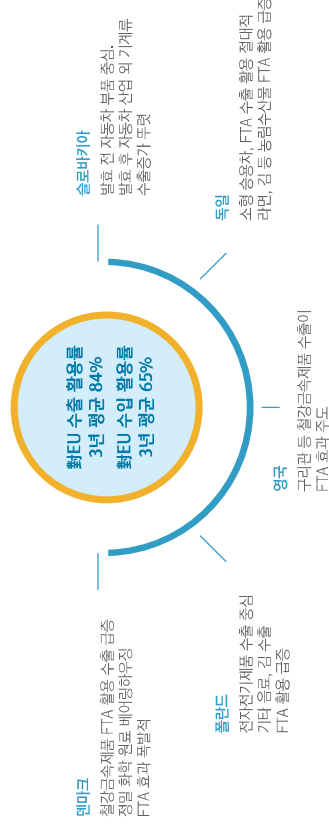
협정을 체결하려면 EU 28개국 모두의 서명이 필요한 바 협정의 체결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03

한-EU FTA 3주년 이행 성과 분석

클/권민경 주임연구원_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 분석 배경 : FTA 이행 초기단계에 지나 한-EU FTA 발효 4년째 접어드는 현재, 지난 3년간의 FTA 활용 성과분석을 토대로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EUSA의 FTA 활용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선 FTA 발효 전후로 對EU 일반수출입 교역의 변화와 FTA교역의 흐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행연차별로 산업과 주요 품목들의 실질적인 FTA 활용현황을 분석하여 FTA 이행 성과 판단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수출상위 5개국을 중심으로 FTA 수출수혜로 기대받은 전략품목들의 FTA 활용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I. 한-EU FTA 3년 교역현황

對EU 총교역 현황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국으로 2013년 전체 수출의 약 8.7%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은 2013년 4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 수입은 5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 전체 무역수지는 약 74억 달러로 적자상태이다.